

대중어문 운동과 라틴화 신문자 방안*

김상원**

◁목 차▷

- I. 들어가는 글
 - II. 대중어문과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합류
 - 1. 대중어와 공통어 구축
 - 2. 대중어문과 문자 개혁
 - 3. 라틴화 신문자 방안과 어문 개혁
 - III. 나오는 글
-

I. 들어가는 글

1930년에서 1935년 사이에 중국에서는 문예대중화 운동이 추진되었다. 문예대중화 운동은 한편으로는 대중들에게 어떤 형태의 작품으로 다가갈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대중들의 참여와 이해 수준을 끌어올릴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중국의 변혁운동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사회문화적 요구에 부응하고, '대중'을 변혁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었다.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문예대중화 운동은 큰 틀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공유하면서도 시기별로 조금씩 각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930년에 진행된 1차 문예대중화 운동은 좌익작가연맹의 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문예대중화의 필요성과 방법이 핵심 쟁점이었다. 그리고 1932년에 진행된 2차 문예대중화 운동은 대중문예의 내용, 언어, 형식, 창작방법, 과제 등이 핵심

* 본 논문은 2012년도 2학기 한양여자대학교 교내연구지원비에 의해 연구됨

** 한양여자대학교 통상중국어과 부교수

쟁점이었으며, 주로 구추백과 모순 사이의 논쟁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1934년에서 1935년까지 진행된 3차 문예대중화 운동은 대중어문의 정의, 사회문화적 기초, 백화문과의 관계 설정, 기준, 표기 방안 등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주로 대중어문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대중어 운동', 또는 '대중어문 운동'으로 불리기도 한다.¹⁾

당시 중국의 대중들이 문예를 자유롭게 감상하고, 주도적으로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은 대중들의 의식과 생활을 제대로 반영하고 인도하지 못했던 작가 개인의 사상적·경험적 한계, 그리고 대중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살아있는 구어와 동떨어진 문체적 한계 때문이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 절대 다수의 대중들이 문자를 알아보지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 상태에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대중들의 자유로운 감상과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회문화 변혁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에게는 마치 부적처럼 난해하고 모호한 부호에 불과한 한자를 개혁하고, 보다 쉽게 익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방안을 고안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것을 매개로 한 교육과 학습을 통해 의식의 제고와 공유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문예대중화 운동의 각 시기별 핵심 쟁점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의 성공 여부는 결국 한자 개혁과 새로운 문자방안의 창안에 달려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차 문예대중화 운동에서 구추백이 한자개혁과 신문자 방안을 주창하고, 3차 문예대중화 운동에서 서면어의 기준과 표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중국의 문예대중화 운동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왔으며, 축적된 연구 성과도 적지 않다. 하지만 문예대중화 운동에서 문자개혁과 새로운 문자방안의 창안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연구는 극히 드물다. 1,2차 운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중문예의 내용과 형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3차 운동에 관한 연구 역시 주로 대중어의 정의와 문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²⁾ 따라서 문예대중화 운동의 본질과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1) 본 연구는 문자개혁과 새로운 문자방안 창안이 3차 문예대중화 운동의 핵심 관건이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러한 3차 문예대중화 운동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언어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대중어 운동'이라는 명칭 대신에 언어와 문자 문제를 모두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대중어문 운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문자개혁과 새로운 문자방안의 창안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이끌어내는 데 적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3차 문예대중화 운동, 즉 대중어문 운동을 공통어 구축과 문자 개혁 문제를 중심으로 조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중어문과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상관관계, 특히 대중어문 운동이 문체 문제에서 출발하여 언어와 문자 문제로 확산되고, 병음문자 방안의 채용 문제로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것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는 주로 언어와 문체개혁의 각도에서 조망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기존의 國音字母인 주음자모나 국어로마자 방안이 아니라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대중어문의 유력한 표기 방안으로 채택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문화적 배경과 그것이 중국 어문개혁운동에서 차지하는 언어사적 의미를 밝히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대중어문과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합류

1. 대중어와 공통어 구축

19세기 말 이래 중국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각종 어문개혁 운동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말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읽어서 이해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어문” 체계가 없었다. 기존의 어문 체계가 대중들의 살아있는 언어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930년대 중반 중국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중적 성격의 어문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문장은 언어를 시각적 부호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대중어문은 ‘대중들의 살아

- 2) 예를 들어 임춘성의 《중국 현대문학 전기의 대중화론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박사학위논문, 1993.)는 문예대중화 운동의 문학사적 의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김민정의 〈1934년의 ‘대중어운동’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8.)는 3차 문예대중화 운동을 어문개혁의 각도에서 다룬 논문이기는 하지만 주로 문체와 언어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자개혁과 병음문자 채용 문제는 간략하게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있는 구두어'를 언문일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면화한 것이다. 하지만 문장은 단순히 언어의 소리를 기계적으로 조합한 시각부호 체계가 아니다. 그것이 문장으로서 온전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소리에 담겨 있는 의미의 소통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소위 '대중들의 살아있는 구두어'는 지역마다 어음의 편차가 심하고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언어였다. 대중들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었으며, 각기 해당 지역의 방언이나 토속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것을 아무런 기준 없이 시각적 부호로 전환시키는 것만으로는 대중어문을 제대로 건설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대중들의 살아있는 언어를 토대로 "말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읽어서 이해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어문"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언어들 중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 서면화할 것인지, 각 지역별 구두어들 간의 어음 편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국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대중어는 어떤 방법으로 구축해 나갈 것인지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1934년 6월 26일 魏猛克는 《申報·自由談》에 〈普通話與“大衆語”〉라는 글을 발표했다. 그는 이 글에서 처음으로 어떤 언어를 대중어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의 논의들을 보면 말과 글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으나, '어떤 말로 쓸 것인가', '대중에게 보편적인 언어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한 언어를 채택하여 대중어로 삼을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의견들이 적은 것 같다. 종전에 구추백은 '현대 중국 보통화'만이 '대중어'이며, 대중들 사이의 보편적인 언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가리키는 보통화는 주로 '현대화된 공장'에서 유통되는 그런 말이었다. 소위 보통화는 교통이 발달하고 각지 사람들의 왕래가 나날이 밀접해짐에 따라 교류의 편리를 요구하게 되면서 탄생하는 것이다. 그것은 각종 토속어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거부한다. 그것은 모든 말이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으며, 모든 단어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한다.(……중략) 물론 '현대 중국 보통화'는 아직 완전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으며, 때로는 '남북의 방언(잡다한 토속어)'이 뒤섞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교통의 발달에 따라 발전하고, 사회의식의 변화에 따라 변할 것이다.(……중략) 따라서 나는 보편성이 있는 '현대 중국 보통화'를 채택하여 '대중어' 문학 건설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³⁾

그는 먼저 대중어를 둘러싼 논의를 ‘언문일치’라는 기본 원칙의 공유에 머물지 말고 ‘어떤 말로 쓸 것인가’, ‘대중에게 보편적인 언어가 존재하는가’, ‘하나의 언어를 채택하여 대중어로 삼을 수 있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로 확장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2차 문예대중화 운동 당시 구추백이 제기했던 ‘현대 중국 보통화’를 대중어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6월 29일 陳奕은 《大晚報·火炬》에 〈什麼是“現代中國普通話”?〉라는 글을 발표하여 이러한 魏猛克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금 중국에는 언어가 통일된 곳이 하나도 없다.(……중략) 전국 도처의 기선·기차·여관 등지에서는 일찍이 통일된 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한 도시 안에서도 이런 통일된 말이 유통된 적이 없었다.”⁴⁾는 것이다. 그러자 7월 2일에는 司馬疵가 《中華日報·動向》에 〈內容與形式〉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魏猛克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교통이 편리하고 공장과 상업이 비교적 많은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대중의 언어는 자신의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을 가다듬고 다른 사람의 비교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대중의 언어는 확실히 변화, 형성, 발전하고 있는 중”⁵⁾이라는 것이다.

이는 2차 문예대중화 운동 당시 구추백과 모순 사이의 논쟁 구도가 그대로 재현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사실상 ‘현대 중국 보통화’는 2차 문예대중화 운동 당시 구추백이 인정했듯이 아직은 성장 중인 것이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이는 대중어문 운동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일종의 맹아로서 ‘현대 중국 보통화’의 실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직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유통될 정도로 성장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魏猛克가 제시한 ‘현대 중국 보통화’를 대중어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객관적인 어문 현실과 적지 않은 괴리가 있었다. 그것은 대중어의 맹아이자 앞으로 건설해 나가야 할 당위적인 목표로 삼을 수는 있어도 당장에 대중어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아직 토대가 취약했다.

한편 陶知行(陶行知)은 7월 4일 《申報·自由談》에 〈大衆語文運動之路〉를 발표

3) 魏猛克, 〈普通話與“大衆語”〉, 文振庭 編,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上海文藝出版社, 1987, 239~240쪽.

4) 陳奕, 〈什麼是“現代中國普通話”?〉,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42~243쪽.

5) 司馬疵, 〈內容與形式〉,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64쪽.

했다. 그는 이 글에서 아직은 완성된 실체를 갖추지 못한 ‘현대 중국 보통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를 대중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살아있는 언어’는 다름 아닌 중국인들 중에 다수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북경어’였다.

대중어는 반드시 살아있는 언어를 기초로 해야 한다. 중국의 1/4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은 바로 여과된 北平語이다.(……중략) 따라서 북평어는 대중어의 주요 성분이 될 자격이 있다.⁶⁾

새로운 어문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살아있는 언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陶知行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대중어가 ‘특정 지역의 살아있는 언어’가 아니라 ‘대중들의 살아있는 언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었다. 당시 절대 다수의 대중들은 이 ‘북경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3/4에 속해 있었다. 그들에게 ‘북경어’는 ‘살아있는 언어’가 아니라 ‘죽은 언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그가 제시한 ‘북경어’는 소위 ‘국어’의 유력한 기준으로 채택될 수는 있을지언정 소위 ‘대중들의 살아있는 언어’를 표방하는 대중어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합했다.

7월 2일 《中華日報·動向》에 동시에 발표된 司馬疵의 〈內容與形式〉과 耳耶(聶紺弩)의 〈開快車時候的一個備忘錄〉는 모두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다. 먼저 司馬疵는 방언과 토속어가 현대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데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대중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주도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장은 그 지역의 방언과 토속어를 기준으로 삼은 대중어를 건설하는 것이 급선무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소통성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대중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것을 “원시적이고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할 수 없다. 주요한 것은 역시 우리가 제출한 내용의 문제에

6) 陶知行, 〈大衆語文運動之路〉,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58쪽.

있다. 자연히 '방언과 토속어'는 현대의 어떤 생각을 표현할 때 수많은 결함이 있다는 느낌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망국의 대재앙이 닥쳐와서 모두 떨쳐 일어나 저지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대중어'로 발전한 다음에야 그들과 이야기해야 한단 말인가?(.....중략) 지금 위급한 상황을 구제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각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방언과 토속어'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중략) 결국 주요한 것은 해당 지역의 사람이 쓰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완전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느끼면 다른 '방언과 토속어'의 어휘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안 될 것도 없다.⁷⁾

耳耶(聶紺弩)도 기존의 보통화라는 것도 어휘나 표현력에 적지 않은 한계가 있으며, 대다수 대중들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토속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중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대중이 사용하고 있는 대중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장강과 황하 유역에 비교적 보편화된 말이 있지만, 대중어로서의 기초적인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춘 것일 뿐 대중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보통화는 어휘가 적고 표현력이 매우 부족하여 대중이 그것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많은 대중들이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토속어'이며, 가장 깊이 이해하는 것도 '토속어'이다. 토속어를 부정한다면 이는 보통화를 충실하게 하여 보통화가 대중어의 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과 같다. 토속어를 제창하고 토속어 속의 보물을 발굴해야만 대중의 문화수준을 쉽게 제고할 수 있으며, 대중의 글쓰기를 쉽게 양성할 수 있으며, 보통화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기도 쉽고, 대중어를 건설하기도 쉽다.⁸⁾

이처럼 그는 대중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토속어를 기준으로 삼아야만 대중들의 문화수준과 글쓰기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보통화를 풍부하게 하고 대중어를 건설하기 쉽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중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속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합리적으로 지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방언이나 토속어를 그대로 대중어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토속어는 지나치게 편벽되어 소통성의 확장에 한계가 있었을

7) 司馬疵, 〈內容與形式〉,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65~266쪽.

8) 耳耶(聶紺弩), 〈開快車時候的一個備忘錄〉, 任重 編, 《文言, 白話, 大衆話論戰集》(上海, 民衆讀物出版社, 1934년판 영인), 〈雜論〉, 20~21쪽. 《民國叢書》 편집위원회 편, 《民國叢書》第一編 52, 상해서점, 1989.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개념과 의식을 담고 있는 새로운 어휘들을 수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애초 〈普通話與“大衆語”〉라는 글에서 ‘현대 중국 보통화’를 대중어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던 魏猛克가 토속어의 채용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나는 토속어를 채용하지는 주장에 매우 회의적이다. 토속어는 원시적이고 진보성이 없는 언어이다. 토속어를 써놓으면 소리내어 읽을 수 있을 뿐 의미를 찾아낼 수 없다. 의미를 검비한 ‘토속어’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토속어가 아니게 된다.(……중략) 한 편의 문장에 알아볼 수 없는 토속어를 수없이 많이 쓴다면 주석을 단다고 해도 그 효과가 성어와 전고를 사용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⁹⁾

토속어는 원시적이고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문장으로 적을 경우 말소리는 담아낼 수 있겠지만 그 소리에 담긴 의미는 해당 지역을 넘어 소통될 수 없기 때문에 대중어의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었다.

7월 8~9일 佛朗(祝秀俠)은 《中華日報·動向》에 〈再提出點意見-關於土話方言問題〉라는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은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토속어와 방언 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그는 魏猛克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토속어를 대중어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 회의적이었다.

지금 각 성의 토속어는 ‘도시 토속어’와 ‘농촌 토속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토속어는 대체로 각 성의 도시 토속어를 가리킨다. 사실 각 성에서 각 현과 향 사이의 토속어는 여전히 서로 많이 다르다.(……중략) 지금 ‘廣東語’라고 불리는 것은 실제로는 ‘廣州語’일 뿐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광주어는 도시 토속어이고, 그 외에도 90개가 넘는 현의 각기 다른 농촌 토속어가 존재한다.(……중략)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만 유통되는 잡다한 방언을 각지에서 모두 문자-범위가 극히 좁은 지방주의적 ‘토속어문’-로 만들 것을 제창한다면 ‘외래’ 문화를 흡수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장애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나는 항상 토속어가 보수적이고 봉건적인 정취를 품고 있으며, 그 지방 고유의 낡은 어휘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내용은 이렇게 낡은 ‘말들’ 속에서 적절하게 표현하기 어렵다.(……중략) 신조어는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

9) 魏猛克, 〈普通話與“大衆語”〉,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40~241쪽.

며,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유의 토속어를 사용해서는 원래의 뜻을 나타내기 어렵다.¹⁰⁾

토속어는 소통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할 뿐만 아니라 보수적이고 봉건적인 정취와 낡은 어휘를 유지하고 있어서 진보적인 어휘들을 수용하는 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어의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사실 방언이나 토속어를 대중어의 기준으로 채택할 경우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대중어의 난립을 불러올 수 있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대중어를 건설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중어문 운동의 선결 과제는 무엇보다도 대중들에게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문체계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국적 동질성을 갖는 대중어는 바로 이러한 대중들의 자유롭고 주도적인 소통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였다. 이 때문에 대중들의 살아있는 언어를 토대로 언문이 일치된 서면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각지의 방언과 토속어를 기준으로 삼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7월 10일에는 葉籟士가 《中華日報·動向》에 〈大衆語·土話·拉丁化〉를 발표했다. 그는 ‘현대 중국 보통화’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다수의 대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속어를 대중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토속어에 기초한 문자를 보급하여 전국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대중어를 형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어는 반드시 ‘현대 중국 보통화’여야 한다는 견해는 옳다. 하지만 이러한 보통화는 현재 맹아일 뿐 그 구체적인 면모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중국 최대 다수의 문맹 대중은 지금까지도 각지의 토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면한 급선무는 우선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각지의 문맹자들에게 간단명료하고 쉬운 개별 ‘토속어 문자’(토속어를 기준으로 하는 문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토속어 문자’의 발전은 대중어(보통화)의 형성에 결코 방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지 대중의 문화수준을 높여 그들이 대중어 창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며, 전국을 하나로 묶는 대중어의 완성을 촉진한다. 따라서 ‘토속어 문자’는 문맹을 퇴치하는 이기로서 대중어와 병행하여도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중

10) 佛朗(祝秀俠), 〈再提出點意見-關於土話方言問題〉, 文逸 編, 《語文論戰的現段階》, 247~248쪽.

어의 창조에 꼭 필요한 절차인 것이다.¹¹⁾

開心도 7월 14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新生周刊》에 〈大衆語運動의幾個問題〉라는 글을 발표했다. 그는 이 글에서 각지의 서로 다른 방언과 토속어들이 하나의 통일된 대중어로 발전해 나가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중어는 결코 경직된 표준을 내세워 소수 지식인의 주관적인 상상에 근거해서 단번에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중의 생활 관계의 발전 과정 중에 계속 확장하는 것이다. 대중들은 끊임없는 유행과 교통 중에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화어를 형성하여 한편으로는 방언의 토속음을 도태시키고, 한편으로는 특수한 방언 토속어들이 자신의 지방적 성격을 버리고 각지의 통용어로 변하게 한다. 대중어는 바로 이러한 언어의 자연 발전과정을 반영하면서 문법적이고 이론적이고 조직적인 것을 가미한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대중들의 통용 화어를 받아들여 수용하고, 지방 토속어를 용해시키고, 한편으로는 선진적이고 유행적인 대중들의 통용어를 낙후한 대중들에게 확산시킨다.¹²⁾

그는 대중교통의 발달과 문화수준의 향상에 따라 대중어의 재료와 내용이 점차 풍부해 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대중어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구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중들의 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 생활과 의식에서 통일화 추세를 보이게 되면 각지의 방언과 토속어들도 점차 서로를 녹이고 흡수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통용어의 어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보았다.¹³⁾

7월 15일 高荒(胡風)은 《中華日報·星期專論》에 〈由反對文言文到建設大衆語〉라는 글을 발표했다. 그는 대중들이 처해있는 문화적 상황과 다양한 방언이 병존하는 언어적 상황을 고려할 때 대중어는 각지 방언과 토속어의 다원적인 발전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대중의 생활필요를 기초로 하는 문화투쟁 임무에 의해 규정되고, 한편으로는 중국 언어의 난립 조건에 의해 규정되는 이른바 ‘대중어’는 결국 일원적

11) 葉籟士, 〈大衆語·土話·拉丁化〉,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71~272쪽.

12) 開心, 〈大衆語運動의幾個問題〉,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83쪽.

13) 開心, 〈大衆語運動의幾個問題〉,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80쪽 참조.

인 ‘국어’식의 것이 아니라 각기 해당 지방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다원적인 발전 일 수밖에 없다.¹⁴⁾

이러한 호풍의 언급은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언어를 지향했던 1910~20년대의 국어운동과 달리 대중들이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지향하는 대중어문 운동의 정체성을 잘 대변해 준다.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중들이 처해있는 객관적인 어문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한편 7월 25일 《社會月報》의 편집자인 曹聚仁은 대중어문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편지를 게재했다. 그가 제기한 질문은 모두 다섯 가지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대중어의 기준과 관련된 것이었다.

대중어의 건설은 표준이 되는 일원적인 국어를 먼저 정한 후에 이를 점진적으로 확산시켜서 방언을 서서히 소멸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먼저 각 대구역의 방언을 정해서 다원적인 대중어를 건설한 후에 이를 점진적으로 집중시켜서 일원적인 국어를 만드는 것인가?¹⁵⁾

이에 대해 8월 3일 魯迅은 《社會月報》에 〈答曹聚仁先生信〉라는 답신을 발표했다. 노신은 답신에서 당시의 중국은 아직 하나의 언어로 통일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우선은 대중어의 사용지역을 “몇몇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은 다시 소구역으로 나누어야 한다.(……중략) 그리고 처음 문장을 쓸 때는 순전히 해당 지역의 방언을 사용해야 한다.”¹⁶⁾고 했다. 즉 우선 기존의 방언 대구역을 동일한 토속어를 사용하는 소구역으로 세분화한 후에 각 소구역과 소구역을 연결해 주는 교통과 교류의 중심지에서 비교적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어휘와 어법을 다시 인근 소구역에 보급함으로써 지역 공통어의 소통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각 지역 공통어들의 상호 공존이 용인되는 다원적 공용어 체제 속에서 향후 교육과 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상호 간의 편차를 줄이고 공통부분을

14) 高荒(胡風), 〈由反對文言文到建設大衆語〉,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77쪽.

15) 魯迅, 〈答曹聚仁先生信〉, 《魯迅全集》6卷, 人民文學出版社, 1989. 78쪽.

16) 魯迅, 〈答曹聚仁先生信〉, 《魯迅全集》6卷, 76쪽.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대중어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⁷⁾

계몽을 할 때는 방언을 사용하되, 한편으로는 또 점진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어법과 단어를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고유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한 지방 어문의 대중화이고, 새로운 어법을 결합시키는 것은 전국 어문의 대중화이다.(……중략) 이처럼 자연스러운 말에다가 인공적인 말을 결합시킨 말이 보편화되는 날이 오면 우리의 대중어문은 대체로 통일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⁸⁾

이러한 노신의 공통어 형성 전략은 무엇보다도 방언의 편차가 심한 중국의 객관적인 언어현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점차 대중들 스스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대중어가 비로소 정말로 대중어가 되는 것이다”¹⁹⁾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그것은 철저히 기존의 일상 언어에 기초한,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 발언과 소통, 효율적인 정보 학습과 의식계발을 통해 대중들이 자신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민주적인 언어문자 체계이자 살아 있는 공통어로서의 ‘대중어문’을 구축하는 것이었다.²⁰⁾

8월 13일 黃賓은 《中華日報·星期專論》에 〈關於白話文與文言文的論爭的意見〉을 발표했다. 이 글은 대중어를 둘러싼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 그간에 다루어졌던 주요 사항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었다.

대중어는 각종 방언이 융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중략) 따라서 각지의 토속어 방언을 최대한 발전시켜야 하며, 그것들이 장래의 통일된 대중어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속어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중략) ‘語’를 ‘文’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중략) 사실 각지의 토속어와 방언은 제창 여부와 관계없이 곳곳에서 매일같이 대중들 사이에서 교환(말하고, 듣고)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발전시키려는 것은 단지 새로운 부호를 채용하여 그

17) 魯迅, 〈答曹聚仁先生信〉, 《魯迅全集》6卷, 76쪽 참조.

18) 魯迅, 〈門外文談〉, 1934年 8月 24日~9月 10日 《申報·自由談》, 《魯迅全集》6卷, 98쪽.

19) 魯迅, 〈致曹聚仁〉, 《魯迅全集》12卷, 496쪽.

20) 拙稿, 〈魯迅의 한자 개혁론과 ‘大衆語’ 기획〉, 《中國文學研究》第33輯, 韓國中文學會, 2006. 12. 238쪽 참조.

것들을 구두어에서 서면어로 변환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들을 구두어에서 서면어로 변환시키게 되면 첫째, 동일한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욱 쉽게 지식을 교환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서로 근접한 방언을 더욱 쉽게 융합시킬 수 있다. 셋째, 각종 진보적인 새로운 지식을 더욱 쉽게 수입할 수 있어서 각지 대중들의 문화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들의 낙후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²¹⁾

대중어문 운동은 대중들의 살아있는 구두어를 기초로 그들이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면어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방언과 토속어를 대중어의 기초로 삼아야만 동일한 방언을 사용하는 대중들 사이의 지식 교환과 인접 방언과의 융합, 대중들의 문화의식 제고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대중어의 기준과 관련된 논의는 먼저 현대 중국 보통화의 실제 유무, 현대 중국 보통화와 북경어, 방언·토속어 중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그리고 대중어의 건설 방법으로 서로 다른 방언들의 공통분모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 방언을 중심으로 통일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이 두 가지는 얼핏 보기에는 무관해 보이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종종 대립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은 첫째, 기존의 언어인 북방어나 방언·토속어, 형성 중인 언어인 현대 중국 보통화, 건설해야 할 언어인 대중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둘째, 대중어문 운동의 목표가 구두어의 통일이 아니라 서면어의 통일에 있으며, 그것을 통해 대중들의 문화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셋째, 보통화와 방언·토속어는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이며, 방언·토속어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전국적 보통화의 존재와 관계없이 공존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중어문 운동은 대중들의 살아있는 구두어를 토대로 그들이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면어를 구축하고, 그것을 매개로 대중들의 문화수준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각지의 대중들이 실

21) 黃賓, 〈關於白話文與文言文的論爭的意見〉,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332쪽.

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언과 토속어를 대중어의 기준으로 삼는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대중어를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지역 방언이나 토속어 중에 편벽되거나 낙후된 표현은 지양하고 인접 방언과 유사한 부분은 융합하고, 보편적이고 진보적인 표현은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국적 대중어의 공통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시 신흥 도시에서 성장 중이던 현대 중국 보통화나 전국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북경어를 매개로 삼아 공통부분의 확장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었다.

2. 대중어문과 문자 개혁

대중어문 운동의 목표 중의 하나는 5·4 백화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들의 살아있는 구두어에 기초한 언문이 일치하는 새로운 문체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는 문체개혁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5·4 백화문의 한계는 근원적으로 한자라는 문자 체계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어문 운동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4 백화문의 문체적 한계를 극복해하는 동시에 그것의 서사부호인 한자를 개혁하거나 병음문자로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때문에 대중어문 운동 초기부터 여러 논자들에 의해 한자개혁과 새로운 병음문자 방안 채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34년 6월 24일 張庚은 《中華日報·動向》에 〈大衆語底記錄問題〉라는 글을 발표했다. 그는 이 글에서 대중어문 운동이 5·4 백화문 운동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한자를 대체할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백화문이 참패하고 투항한 원인은 전적으로 그것의 계급적 속성에 있었다. 그러나 그중에서 주요한 계기 중의 하나는 바로 기록 문제에 있었다.(……중략) 중국어는 단음절어에서 점차 다음절어로 발전해 나가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문자는 여전히 단음절인 한자의 형태에 정체해 있다. 때문에 문자와 언어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고 기록에도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문자를 제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자를

여전히 존치시킬 수밖에 없으며, 설사 대중어를 제창하더라도 결과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문언화되고 경직되어 사멸하고 말 것이다.(.....중략) 한자는 사실상 일종의 죽은 문자이며, 文言 문자이며, 봉건적인 문자이다. 낡은 포대에는 새 술을 담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르면 그것은 사실상 대중어라는 풍부하고 활기찬 언어를 기록할 수 없다.²²⁾

단음절인 한자가 다음절어로 나아가는 구두어의 변화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언어와 문자 사이의 불일치, 구두어와 서면어의 괴리를 심화시켜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들의 살아있는 구두어에 기초해 언문이 일치하는 대중어문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대체할 새로운 문자 방안을 제창해야 한다는 것이다.

6월 28일에는 《申報·讀書問答》編者 명의로 《申報·自由談》에 〈再談建設大衆語文學〉이라는 글이 발표되었다. 이 글에서는 대중어문을 건설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임무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形義字를 개선해서 점진적으로 병음자로 바뀌나감으로써 말과 문자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타파하는 것”²³⁾이었다. 즉 한자를 병음문자로 대체함으로써 언어와 문자의 불일치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한자개혁과 새로운 병음문자 방안의 창안은 19세기 말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중국 어문개혁운동의 핵심 논점 중의 하나였다. 그동안 切音字, 注音字母, Esperanto, 국어로마자, 라틴화 신문자 등이 한자를 대체할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 중에서 주음자모와 국어로마자 방안은 정부의 공인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결국은 한자의 지위와 사용을 대체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대중들은 여전히 문맹 상태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대중들이 문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면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병음문자 방안의 창안이나 채용이 대중어문 운동의 선결 과제이자 궁극적 목표로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22) 張庚, 〈大衆語底記錄問題〉, 任重 編, 《文言, 白話, 大衆話論戰集》(上海, 民衆讀物出版社, 1934년판 영인), 《民國叢書》 편집위원회 편, 《民國叢書》第一編 52, 上海, 상해서점, 1989. 46~47쪽.

23) 두 번째 임무는 “대중의 생활(문화)을 끌어올리고 대중어의 어휘를 늘려서 대중어와 일 반적인 문화발전이 일치된 보조를 취하게 하는 것”이었다. 《申報·讀書問答》編者, 〈再談建設大衆語文學〉,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22쪽.

葉籟士도 7월 10일 《中華日報·動向》에 발표한 〈大衆語·土話·拉丁化〉라는 글에서 張庚과 마찬가지로 백화문이 문언문의 한계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문언부흥을 초래하고, 대중들에게 외면당하는 위기에 봉착한 것은 한자를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고, 써낼 수 있는” 대중어문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자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화문은 형식에 있어서 봉건 문언문의 형상인 한자를 계승했다. 이는 봉건 문언문에 대한 일대 타협으로서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문언부흥’의 근원을 제공하여 문언문이 변장을 하고 백화문에 섞여 들 수 있도록(예를 들면 語錄體같은 것) 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백화문을 대중들에게 여전히 어려운 문장으로 만든 것이다. 백화문 어휘의 빈약함이나 언문을 일치시킬 수 없었던 것도 형상의 한자가 그것의 발전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오늘날 우리의 구어는 무수한 의성어를 갖고 있는데, 한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토속어 문자’와 대중어를 창조하려면 반드시 상형한자를 철저히 타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고, 써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²⁴⁾

특히 그는 대다수 대중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살아있는 구두어는 방언과 토속어이므로, 그것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토속어 문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중국 언어의 병음화에 관해 과거에 이미 국어통일준비회의 ‘주음부호’와 ‘국어 로마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의 가장 큰 결점은 바로 모두가 복경어를 강제로 표준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경어투’를 익히는 것은 지식인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중략)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창안 목적은 그 지역의 대중들에게 일종의 서면어를 제공하려는 데 있지, 결코 전국적으로 보통화로 사용도록 강요하려는 데 있지 않다. 라틴화 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은 전국을 5~7개의 방언구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구역의 방언을 모두 라틴화하여 각지의 문맹을 퇴치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라틴화’는 연구하고 참조할 만한 가치가 매우 많다.²⁵⁾

24) 葉籟士, 〈大衆語·土話·拉丁化〉,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72쪽.

이러한 葉籟士의 제안에 대해 중국이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매개체 역할을 해온 한자를 토속어 문자로 대체하면 중국이 분열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반론은 19세기 말 어문개혁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한자폐지와 병음문자에 반대하는 이들에게서 줄곧 제기되어 왔던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자폐지와 병음문자 채용에 찬성해온 역대 논자들의 반론처럼 한자를 매개로 한 통일은 지식인 계층에 한정된 것으로서 애초부터 한자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대중들의 통일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라틴화 신문자 방안을 대중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국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했다. 절대 다수의 대중이 문맹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속어 병음문자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의 통일성 유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대중들에게 문맹에서 벗어나 지식을 습득하고 정서를 교류하고 문화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대중적 연대 의식과 가치관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진정한 전국적 통일성을 이끌어 내도록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郭沫若도 〈論方言拉丁化之切要〉라는 글에서 향후의 표준 국어는 표준어와 방언의 변증법적 통일이어야 하며, 따라서 방언 라틴화 신문자는 대중들의 교화뿐만 아니라 표준어의 추진과 확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표준 라틴화 국어의 창건은 당연히 모종의 표준어와 각지 방언의 변증법적 종합이어야 한다. 따라서 방언의 라틴화는 지금 일부 지방의 대중을 교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며, 표준 라틴화어의 추진과 창건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 방언의 라틴화는 또한 방언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라틴화의 힘에 의지해야만 각지의 방언을 지양하고 보다 높은 단계의 표준 라틴화어로 발전할 수 있다.²⁵⁾

이처럼 방언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중국과 중국의 언어를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지 방언의 편차를 변증법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의 표준어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25) 葉籟士, 〈大衆語·土話·拉丁化〉,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72~273쪽.

26) 郭沫若, 〈論方言拉丁化之切要〉,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時代出版社, 1949년 판 영인), 《民國叢書》編輯委員會 編, 《民國叢書》第二編 52, 上海, 上海書店, 1989. 119쪽.

聞心은 7월 14일 《新生周刊》에 발표한 〈大衆語運動的幾個問題〉라는 글에서 중국에서 방언이 복잡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소수가 문자를 독점하고서 대중들에게 문자에 접근할 기회를 주지 않고, 문자와 언어가 날이 갈수록 멀어지게 하고, 의식과 언어를 교환하는 것을 가로막은 데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언문이 일치된 병음 쓰기법을 채용하여 각지 대중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각지의 방언은 상호 흡수와 소멸을 통해 점차 차이점을 소멸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중국 방언의 복잡함이 중국의 혼란과 분열을 조성하는 원인이며, 다행히 통일된 문자 덕분에 각지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완전한 격리 상태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사실 중국의 방언이 이처럼 복잡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각지의 봉건적이고 폐쇄적인 경제와 정치 할거에 있다. 그리고 문자를 소수가 독점하고, 역대의 대중들에게는 ‘통일된’ 문자와 가까워질 기회를 주지 않고, 문자와 언어의 거리가 날이 갈수록 멀어지게 한 데 있다. 이처럼 대중들이 자신들의 의식과 언어를 교환하는 것을 더욱 가로막았다. 장래에 언문이 일치되고 병음 쓰기법을 채용할 때가 되어야만 비로소 각지 대중들이 정신을 교환하는 관계를 더 긴밀하게 연결해줄 수 있다. 방언의 상호 흡수와 소멸을 통해 각지 방언의 과도한 차이를 점차 소멸시킬 것이다.²⁷⁾

특히 그는 중국 어문의 대중화 작업과 상형문자에서 병음문자로의 전환 작업은 상호 간의 전제이자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어문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문자의 병음화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자의 병음화를 원활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문의 대중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문제는 반드시 밀접한 연관관계 속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중국문자가 완전한 대중화에 도달하려면 상형문자가 병음문자로 전환된 이후에야 가능하다. 상형문자는 대중들의 학습과 사용에 있어서 어쨌든 수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병음 쓰기법이 성공하기 전에는 어문을 대중화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어문의 대중화운동을 통해서만 병음문자를 쉽게 성공시킬 수 있으므로 앞으로 대중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문 병음화 문제와 대중어 문제를 더욱 연계해서 토론을 제기해야 한다.²⁸⁾

27) 聞心, 〈大衆語運動的幾個問題〉,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80쪽.

28) 聞心, 〈大衆語運動的幾個問題〉,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280~281쪽.

약 한달 후인 8월 11일 葉籟士는 《中華日報·動向增刊》에 다시 〈一個拉丁化論者對於漢字拜物主義者的駁斥〉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그는 이 글에서 대중어문 운동은 백화문의 개혁이 아니라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채용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중어문 운동의 진행에서 불구하고 당시 지식인들은 라틴화 신문자 채용보다는 백화문 개혁을 선호하고 있었다. 지식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일상적인 문자 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구어만 있고 문자는 없는 문맹 대중들의 사정은 달랐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구어를 간편하게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문자 방안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葉籟士는 대중어문은 반드시 라틴화 신문자와 같은 병음문자를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인들은 백화문에서 상층계급의 전국 통일성(발음상으로는 여전히 통일되지 않은)만 보았을 뿐이다. 이 때문에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가늠하고, 지식인의 주관적 편견을 객관적인 현실로 둔갑시킨다. 그리고 대중어문 운동을 취소하고, 이 운동을 한자의 식자운동이나 백화문 개량운동으로 왜곡시킨다. (……중략) 이는 그들이 대중의 입장에서 ‘객관 현실’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략) 대중들이 보기에 이 문제는 결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다. 대중들이 지금 사용하는 말을 가장 간단 용이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해 내자는 것이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구어의 라틴화인 것은 이 때문이다.²⁹⁾

그는 이러한 요구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병음화 방향으로 진화해 온 한자의 역사적 변천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자는 상형자이고, 중국 고유의 문화이기 때문에 병음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병음화를 제창하기 전에 한자 역시 자연발생적으로 병음화의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한자 중의 수많은 동음가차 사례는(……중략) 옛사람들도 글자를 소리 부호로만 간주하여 소리만 같으면 통용할 수 있었음을 말해준다. 중국 한자에서 상형과 병음의 대립은 오래된 것이며 근래에 와서 더 격렬해진 것에 지나지 않는

29) 葉籟士, 〈一個拉丁化論者對於漢字拜物主義者的駁斥〉,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95~96쪽.

다.(……중략) 라틴화는 대중들의 요구이자 한자 진화의 필연적인 방향이다.³⁰⁾

그가 한자를 폐지하고 라틴화 신문자로 대체해야 한다고 한 것은 단지 한자로는 대중들의 살아있는 구두어인 방언과 토속어를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자가 대중들을 문맹에 빠뜨리고, 수 천 년 동안 문화로부터 격리시키고, 정치로부터 소외시켜온 주범이었다는 데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한자 폐지와 라틴화 신문자 채용을 둘러싼 지식인과 대중들의 입장 차이를 문화·정치권력을 둘러싼 양 진영의 대립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대중들을 문화와 정치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자를 폐지하고 라틴화 신문자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의 어문혁명 전선에서는 양대 진영이 매우 분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편은 문자(서면어)를 사적으로 점유한 소수의 권력자나 지식인이고, 다른 한편은 구어만 있고 문자는 없는 대중이다. 전자는 한편으로는 이미 죽은 한자를 '國粹'로 떠받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자식자운동이나 '平民千字課'와 같은 개량주의의 속임수를 쓰고 있다. 대중들은 지식인들처럼 오랜 시간을 들여 어려운 한자를 익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매, 암흑, 야만'의 심연에 갇힐 수밖에 없다. 이는 대중을 영원히 정치 밖에 세워두려는 아주 교묘한 술수이다. 권력자들은 문자를 독점하고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자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한다. 대중들은 문자를 생취하고자하기 때문에 라틴화를 사용하고 한자를 폐지하려고 한다. 권력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문자의 복잡함과 어려움, 우아함이고, 대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문자의 편리함과 응용이다. 한자혁명은 양대 진영의 대립이 어문 문제에 반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³¹⁾

한편 魯迅은 대중어문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문자 개혁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³²⁾ 그는 대중어문 운동이 시작된 6월부터 지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

30) 葉籟士, 〈一個拉丁化論者對於漢字拜物主義者的駁斥〉,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94쪽.

31) 葉籟士, 〈一個拉丁化論者對於漢字拜物主義者的駁斥〉,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93~94쪽.

32) 예를 들어 1927年 3月 23日 漢口《中央日報》副刊에 게재된 〈無聲的中國〉에는 한자 폐지에 대한 노신의 기본 입장이 잘 담겨 있다. 이 문장은 魯迅日記에 의하면 1927년 2월 18일 '香港青年會'에서 행해진 강연록이다.

만 아니라 8월말부터는 〈門外文談〉, 〈漢字和拉丁化〉, 〈中國語文的新生〉, 〈關於新文字〉, 〈論新文字〉 등의 문장들을 발표함으로써 한자 개혁과 라틴화 신문자 채용 관련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³³⁾

노신은 한자를 “조상이 중국인들에게 물려준 무서운 유산”³⁴⁾이자, “고생하는 대중들의 몸에 들어선 결핵”³⁵⁾으로 인식했다. 때문에 중국인이 “살아남으려면 먼저 지식 전파를 방해하는 결핵인 문언문과 한자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낡은 문자에 희생당하고 싶지 않으면 낡은 문자를 희생시켜야만 한다.”³⁶⁾고 주장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대중들이 문맹 상태에 처해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대중어문의 표기 방안으로 라틴화 신문자가 제기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문언문을 제창하는 복고적인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 목전의 대중어문의 제창이다. 하지만 역시 여전히 중국에는 문자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는 못했다. 라틴화 제의가 나오고 나서야 문제 해결의 핵심 고리를 잡았다.³⁷⁾

특히 한자로는 각지의 대중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살아있는 구두어인 방언과 토속어를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라틴화 신문자 방안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자를 가지고 사투리를 그대로 문장으로 읊었을 경우, 어떤 것들은 해당 글자가 본래 갖고 있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것이고, 어떤 것들은 단순히 사투리의 음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것에 불과하다. 때문에 우리가 문장을 볼 때는 어떤 것이 의미를 가져온 글자이고 어떤 것이 음을 빌려온 글자인지를 분별해 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습관이 되지 않고는 매우 힘든 일이다.(……중략) 지금은 오직 “書法拉丁化(쓰기를 라틴화하는)”하는 길밖에 없다. 이는 대중어문과 떼어놓을

33) 대중어문 운동 당시 노신의 지도적인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는 〈樂嗣炳談“大衆語”運動和魯迅先生〉, 212~213쪽을 참조할 것.

34) 魯迅, 〈無聲的中國〉, 《魯迅全集》4卷, 11쪽.

35) 魯迅, 〈關於新文字〉, 《魯迅全集》6卷, 160쪽.

36) 公汗(魯迅), 〈中國語文的新生〉, 《魯迅全集》6卷, 115쪽.

37) 公汗(魯迅), 〈中國語文的新生〉, 《魯迅全集》6卷, 115쪽.

수 없다.³⁸⁾

노신은 문자가 성현이나 영웅의 신성한 발명품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의 지혜를 통해 점진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의 재산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역대로 한자의 구조적 한계와 문자의 독점을 부추기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식자층이 크게 제한되어 왔다. 그리고 이는 문자에 기초한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독점을 야기함으로써 문화를 모든 구성원들에게 개방된 것이 아니라 소수 지배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문자를 대중들에게 돌려주고, 대중들이 이 문자에 기초해 지식을 습득하고 근대적 주체로 다시 태어나 중국문화를 새롭게 개혁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자라는 걸림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라틴화 신문자를 채용한 대중어문을 건설하는 것이 '소리 없는 중국'을 다양한 소리와 의견들이 교류하는 문명화된 열린 중국으로 변모시키는 관건이자 중국문화를 개혁하는 관건이라고 보았다.³⁹⁾

봉건적이고 복고적인 문화운동에 편승하여 일어난 문언부활 움직임에 맞서 새로운 시대의 대중적 이데올로기와 문화의식을 내세우며 등장한 대중어문 운동으로서 는 무엇보다도 지배계층의 문화독점을 영속화시켜온 한자라는 문자체계를 우선적으로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대중어문 관련 논의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당면한 어문 현실과 여기에서 기인하는 문화적 왜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중어문을 건설을 위해서는 한자를 폐지하고 병음문자로 대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존의 병음문자 방안 중에서 라틴화 신문자가 대중어문의 표기 방안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이에 애초 서로 다른 시점에 다른 계기에서 시작한 대중어문 운동과 라틴화 신문자 운동은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된다. 그리고 대중어문의 표기 방안을 둘러싼 논의는 점차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실험과 보급 논의로 확장되어 나가게 된다.

38) 仲度(魯迅), 〈漢字和拉丁化〉, 1934年 8月 23日 《中華日報·動向》, 《魯迅全集》5卷, 556쪽.

39) 拙稿, 〈魯迅의 한자 개혁론과 '大衆語' 기획〉, 《中國文學研究》第33輯, 223쪽.

3. 라틴화 신문자 방안과 어문 개혁

대중어문 운동 시작 1년여 전인 1932년 12월 瞿秋白은 《新中國文草案》을 발표했다. 이 책은 구추백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체제와 특징을 가장 완전한 형태로 보여준다.⁴⁰⁾ 이 때문에 1934년 대중어문의 표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유력한 방안으로 채용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실증적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이 《新中國文草案》의 〈緒言〉에는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기본적인 취지와 구상이 담겨 있다. 이를 보면 라틴화 신문자 방안과 대중어문의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 등이 매우 유사하다는 알 수 있다.

《新中國文草案》의 〈緒言〉에는 당면한 어문현실에 대한 진단과 병음제도의 시행 가능성, 공통어문과 방언문의 이원화 계획 등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그는 먼저 당면한 어문현실에 대해 한자의 복잡함과 난해함, 구두어와 괴리된 문언과 거짓 백화, 거의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는 문자와 언어 등이 대중들의 자유로운 언어 문자 운용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려면 한자를 폐지하고 병음제도를 채용하는 철저한 문자혁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⁴¹⁾

중국의 대중들은 대부분 문맹이다. 설사 몇 글자를 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자유롭게 운용하지 못한다. 이는 근본적인 원인 이외에도 중국 문자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자의 복잡함과 난해함, 구두상의 언어가 되지 못하는 문언과 거짓 백화, 거의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는 문자와 언어 때문에 가장 철저한 문자혁명이 매우 필요하다.(……중략) 고문 문언과 불철저한 거짓 백화는 한자를 폐지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설사 병음제도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아주 복잡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발전하고 있는 '현대 중국의 공통어', 진정한 구두상의 백화 및 이러한 백화를 근거로 쓰낸 진정한 백화문은 이미 간편한 병

40) 본 절은 대중어문 운동이 라틴화 신문자 운동과 합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누구에 의해, 어떠한 계기와 경로를 거쳐 창안되고 보급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은 논외로 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拙稿 〈瞿秋白의 '라틴화 新文字 方案' 연구〉(《中國文學研究》第40輯, 韓國中文學會, 2010. 6)를 참조하기 바란다.

41) 拙稿, 〈瞿秋白의 《新中國文草案》 연구〉, 《中國文學研究》第41輯, 韓國中文學會, 2010.12. 89쪽.

음제도를 채택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⁴²⁾

이처럼 그가 말하는 ‘철저한 문자혁명’은 대중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구두어를 가장 근사하게 담아낼 수 있는 병음문자로의 질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철저한 문자혁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각지의 방언들이 통일되지 않은 어문 현실이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실제 구두어에 기초한 ‘진정한 백화문’의 경우에는 문법과 어휘, 독음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미 병음제도를 채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대동소이한 독음을 병음자모로 표기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독음을 고정적이고 비슷한 독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각 지역의 공용 문자와 언어를 점차 일치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⁴³⁾ 그가 서명에서 사용한 ‘新中國文’이란 바로 이러한 각 지역의 공용어를 병음문자로 표기한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 중국문, 즉 병음제도를 채택한 중국문은 ‘공용어(각 지방이 공용하는 말)’를 대표하는 문자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新中國的普通話文’, 줄여서 ‘新中國文’이라고 부른다.⁴⁴⁾

그는 일정 기간 동안은 전국적 공통어와 방언의 상호 공존과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각 지역의 방언도 ‘공통어문’의 병음법과 자모를 기초로 삼기만 한다면 자신들의 방언문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신중국문’을 전 중국 공용의 ‘주요한 문자’로 삼고, 각 지역의 방언문은 해당 지역 민중들이 전용하는 ‘보조 문자’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⁴⁵⁾

각 지방의 방언의 경우 어떤 방언이 실생활에서 문자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면 이 방언문을 현지의 문자로 제정할 수 있다.(물론 방언문의 병음 방법과 자모는 ‘공통어문’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중국의 공통어문’은 장차 전체 중국의

42) 瞿秋白, 《新中國文草案》·〈緒言〉, 《瞿秋白文集·文學編 3》, 人民文學出版社, 1985. 423쪽.

43) 拙稿, 〈瞿秋白의 《新中國文草案》研究〉, 90쪽.

44) 瞿秋白, 《新中國文草案》·〈緒言〉, 《瞿秋白文集·文學編 3》, 424쪽.

45) 拙稿, 〈瞿秋白의 《新中國文草案》研究〉, 90쪽.

공용문자가 되어야 하며, 각 지방의 방언문은 현지 민중들이 전용하는 문자가 되어야 한다. ‘新中國文’은 중국의 ‘주요한 문자’이며, ‘新上海文’, ‘新北平文’, ‘新廣州文’ 등은 해당 지역의 ‘보조 문자’로 삼을 수 있다. 우리의 이 초안은 바로 ‘새로운 중국의 공용어문’의 초안을 잡으려는 실험의 일종이다. 따라서 상세한 토론과 수정을 거쳐 철저한 문자혁명을 촉발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⁴⁶⁾

이처럼 그는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방언문을 사용하고, 전국적인 정치·경제·문화 영역에서는 전국적 공용어를 사용하면서 상호 간의 공통분모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공용어 형성 전략이라고 보았다.⁴⁷⁾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어느 한 지역의 언어를 표준으로 삼아 전국의 언어를 통일시켜 나가는 소위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강압적이고 일원적인 언어 정책에 반대하고 ‘아래로부터 위로’의 자연스럽고 다원적인 통합 방안을 추구하는 것이었다.⁴⁸⁾

사실 주음자모나 국어로마자,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모두 어려운 한자 대신에 쉽고 편리한 병음문자를 채용하여 대중들의 문맹을 해소하고 언문이 일치된 서면어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주음자모는 한자의 형태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혼합 어음들을 표준으로 삼았으며, 국어로마자 방안은 병음법칙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북경 지역의 어음을 표준으로 삼은 것이었다. 그리고 한자의 표준 독음을 보급하여 방언의 편차를 해소하고 전국적 통일성을 갖춘 ‘국어’를 건설하기 위해 제기된 ‘일원적 어문 통일 방안’이었다. 이에 비해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다른 병음문자 방안에 비해 배우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방언음에 기초한 토속어 병음문자의 공존을 적극적으로 용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존 위에서 각 지역 대중들의 자연스러운 소통과 교류를 통해 토속어 병음문자의 공통분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국적 공용어문을 구축해 나가려는 ‘다원적 어문 통합 방안’이었다.⁴⁹⁾

46) 瞿秋白, 《新中國文草案》·〈緒言〉, 《瞿秋白文集·文學編 3》, 424쪽.

47) 拙稿, 〈瞿秋白의 《新中國文草案》 연구〉, 91쪽.

48) 拙稿, 〈瞿秋白의 ‘현대적 공용어의 新中國文’ 연구〉, 韓國中文學會, 2009.12. 94쪽 참조.

49) 한자를 폐지하고 병음문자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적이

이러한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취지와 구상은 문체와 언어, 문자의 개혁을 통해 사회 변혁을 이끌어 내고자 했던 대중어문의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대중어문의 기준과 표기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라틴화 신문자 이 유력한 방안으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라틴화 신문자 운동과 대중어문 운동이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한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어문체제를 대체할 유력한 방안으로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

Ⅲ. 나오는 글

중국의 대중들은 역대로 기존의 어문 체계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 때문에 대다수 대중들은 문맹으로 인한 낙후한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대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어문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며, 설사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낼 수 없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의 서면어가 대중들이 익히기에는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고, 대중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살아있는 구두어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중어문 운동은 애초 5·4 백화문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다. 즉 서사문의 구어화가 아니라 구두어의 서면화를 구현할 수 있는 진정한 문체 개혁을 이루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두어의 서면화를 가로막고 있는 한자를 병음문자로 대체하는 문자개혁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자는 전국 각지에서 서로 다른 방언과 토속어를 사용하고 있는 대중들의 방언과 토속어를 서면화하기는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구두어와는 거리가 먼 문자 체계였기 때문이다.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이 소위 '正音'을 표기하고 '국어'의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각기 다른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대중들에게는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에 비해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대중들이 자신의 말소리를 그대로 문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이전의 방안들보다 훨씬 두터운 대중적 기초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茅盾, 〈文藝大衆化的討論及其他〉, 文振庭 編,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422쪽 참조.

이 때문에 대중어문 관련 논의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당연한 객관적인 어문 현실과 대중들이 처해있는 낙후한 문화 상황을 고려할 때 그들이 “말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읽어서 이해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어문”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살아있는 말인 방언이나 토속어를 언문일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병음문자로 표기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중들의 살아있는 구두어’에 기초한 전국적 대중어문을 건설해 나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바로 이 각지 방언 대중어문의 다원적인 발전 과정에서 교육과 교류, 정리와 선별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호간의 편차를 해소하고 공통부분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중어문 운동의 공통어 구축 방안과 구체적인 문자 개혁 방법은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그것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대중어문이 한자를 대체할 병음문자로 라틴화 신문자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며, 애초 서로 다른 시기와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출발한 두 운동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어문 개혁 운동으로 합류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대중어문 운동 목적은 만칭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역대의 언어문자 개혁운동과 마찬가지로 대중들을 계몽시키기 용이한 언어문자 도구의 선택과 보급에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계몽을 통한 대중들의 문화의식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화 생산과 소통 과정에 대중들의 적극적인 발언과 자유로운 글쓰기를 제도화함으로써 기존의 문화 구조를 재편하려는 것이었다. 즉 대중들이 문맹에서 벗어나 스스로 의식수준을 제고하고, 자유롭고 주도적인 글쓰기를 통해 진보적인 의식을 공유하고, 나아가 봉건적이고 복고적인 사회문화를 개혁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 이것이 대중어문 운동의 가장 큰 역사적 의의이자 역대의 언어문자 개혁운동과 질적으로 다른 점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대중어문 운동은 표면적으로는 어문체계를 둘러싼 논쟁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봉건적 국가주의에 맞서 사회주의적 대중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중국 사회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일종의 문화변혁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文振庭 編,《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上海文藝出版社,1987.
- 倪海曙 編,《中國語文的新生》(時代出版社,1949년판 영인),《民國叢書》編輯委員會編,《民國叢書》第二編 52,上海,上海書店,1989.
- 文逸 編,《語文論戰的現段階》(天馬書店,1934년판 영인),《民國叢書》編輯委員會編,《民國叢書》第一編 52,上海書店,1989.
- 任重 編,《文言,白話,大衆話論戰集》(民衆讀物出版社,1934년판 영인),《民國叢書》編輯委員會編,《民國叢書》第一編 52,上海書店,1989.
- 瞿秋白,《新中國文草案》·〈緒言〉,《瞿秋白文集·文學編 3》,人民文學出版社,1985.
- 魯迅,《魯迅全集》,人民文學出版社,1989.
- 樂嗣炳,〈樂嗣炳談“大衆語”運動和魯迅先生〉,《魯迅研究資料9》,天津人民出版社,1982.
- 김민정,〈1934년의 ‘대중어운동’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2006.8.
- 임춘성,《중국 현대문학 전기의 대중화론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박사학위논문,1993.
- 趙顯國,《瞿秋白 文學思想 研究-魯迅과의 文化的 連帶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2010.
- 拙稿,〈魯迅의 한자 개혁론과 ‘大衆語’ 기획〉,《中國文學研究》第33輯,韓國中文學會,2006.12.
- 拙稿,〈瞿秋白의 《新中國文草案》 연구〉,《中國文學研究》第41輯,韓國中文學會,2010.12.
- 拙稿,〈瞿秋白의 ‘현대적 공통어의 新中國文’ 연구〉,《中國文學研究》第39輯,韓國中文學會,2009.12.
- 拙稿,〈瞿秋白의 ‘라틴화 新文字 方案’ 연구〉,《中國文學研究》第40輯,韓國中文學會,2010.6.

【中文提要】

大衆語文運動不是爲了書面語的口語化推進的,而是爲了口頭語的書面化,就是說爲了實現真正的文體改革推進的.因此,隨着大衆語文運動的發展,爲

了建設大眾“說得出、聽得懂、看得明白、寫得順手”的言語文字，必須把他們在實際生活中使用的方言和土話，以拼音文字標記的認識深化了。

最初大眾語文運動與拉丁化新文字運動在不同的時期、不同的社會文化背景上發生的。可是，這兩種語文改革運動在普通話的建設和文字改革的具體方法上很大一部分一致。因此，這兩種語文改革運動自然而然地合為一個語文改革運動。

大眾語文運動的最終目標是使大眾的積極發言和自由寫作在文化生產和溝通中制度化，以此來全面改革現成的文化結構。這是大眾語文運動的最大的歷史意義，並且是與以前的語文改革運動截然不同的部分。

【主題語】

大眾語文運動，拉丁化新文字，文體改革，文字改革，文化變革
Mass Language Movement, Latinized Chinese Character, style revolution,
character revolution, culture revolution

투고일: 2013. 4. 10 / 심사일: 2013. 4. 20~5. 5 / 게재확정일: 2013. 5. 10